

보이는 차이나

‘WAIC 2026’에서 확인한 중국 AI 산업 발전 방향

- 2026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대표 AI 행사 WAIC를 통해 중국 AI 산업의 발전 방향과 핵심 기술 트렌드 제시
- 시진핑 주석의 첫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플러스’, 오픈소스 생태계, AI 인프라, 글로벌 협력을 아우르는 중장기 육성 전략 재확인
- 초노드·초대형 클러스터, 고성능·저비용 LLM 등 중국식 AI 경쟁력 부각과 함께 휴머노이드도 서비스·생활 분야로 확산되며 초기 상용화 단계 진입
- 중국 AI 산업의 뚜렷한 중장기 성장 방향에 주목하며 중국 테크지수·반도체 등 AI 밸류체인 투자 유효

WAIC: 중국 AI 정책·기술·산업 전략을 공유하는 대표 행사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는 중국 정부와 상하이가 공동 개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AI 행사다. 2018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았으며, 중국 정부의 AI 정책 방향과 산업 전략, 주요 기업들의 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가 주요 부처와 과학기술 관련 기관, 연구기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발표와 기술 전시, 산업 포럼, 투자 협력 등을 진행하는 만큼, 중국 AI 산업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된다.

역대 WAIC의 핵심 의제를 살펴보면 중국 AI 산업의 발전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AI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었다면,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는 대형 언어모델(LLM)과 AI 반도체가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AI Agent, 오픈소스 생태계, 초노드 기반 AI 인프라, 휴머노이드, AI 거버넌스 등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며 AI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구축과 상용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26년 WAIC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다. AI 모델과 반도체뿐 아니라 초노드 기반 AI 인프라, AI Agent, 오픈소스 생태계, 휴머노이드, AI 거버넌스 등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과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전략과 오픈소스 생태계,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 WAIC는 중국 AI 산업이 모델 경쟁을 넘어 AI 인프라와 응용, 생태계 구축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로 평가한다.

표 1. 역대 WAIC 주요 변화와 핵심 의제

연도	주요 의제
2018	1회 WAIC 개최, 중국 AI 산업 육성의 출발점
2019	마윈-일론 머스크 AI 토론, 글로벌 관심 확대
2023	생성형 AI·대형언어모델(LLM) 본격 부각
2024	AI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 신설, 글로벌 AI 규범 논의 확대
2025	오픈소스 LLM·AI 인프라·휴머노이드 경쟁 본격화
2026	시진핑 첫 기조연설, 초노드·초대형 클러스터·LLM 가격 경쟁력·휴머노이드 상용화 부각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WAIC가 제시한 핵심 포인트

1) 최고지도자 등판. 중국 AI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올해 WAIC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에 직접 참석했다는 점이다. WAIC는 2018년 첫 개최 이후 중국 AI 산업을 대표하는 국가 행사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은 정치국 위원이나 상하이시 지도부가 개막식을 주관했고, 최근에는 리창 총리가 2024~2025년 연속으로 기조연설을 맡으며 국무원 차원의 산업 육성 의지를 전달해 왔다.

반면 올해는 국가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직접 AI 비전을 제시하면서 AI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AI Plus 전략, 오픈소스 생태계, AI 인프라, 국제 협력 등을 함께 제시한 것은 중국이 자체 AI 생태계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연설의 범위도 기존의 국내 산업 육성에서 글로벌 AI 협력과 거버넌스로 한층 확장됐다.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AI를 확산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략과 오픈소스 생태계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에 AI 연수·교육 기회 5,000개를 제공하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지역에 AI 응용 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9개국이 참여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의 출범을 통해 국제 AI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AI 전략이 자체 기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서 나아가, 개도국과의 기술 협력과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WAIC는 AI 산업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기술 규제에 대응해 오픈소스와 국제 협력을 앞세운 중국식 AI 발전 전략을 제시한 행사였다. 최근 중국 AI 모델과 AI 인프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초노드와 초대형 클러스터로 진화하는 중국식 AI 인프라

올해 WAIC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AI 인프라의 경쟁 기준이 시스템 단위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단일 AI 칩의 연산 성능이 핵심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AI Agent 확산과 장문맥, 멀티 에이전트 환경이 확대되면서 수천~수만 개의 AI 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가 AI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대표하는 기술이 초노드(SuperNode)다. 초노드는 여러 대의 서버와 수천 개의 AI 칩을 초고속 인터커넥트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터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초노드가 대규모로 연결되면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대규모 추론을 수행하는 초대형 AI 클러스터가 된다.

올해 3월 공개된 DeepSeek V4가 화웨이 Ascend 칩에 최적화되고, 이후 화웨이가 Ascend 초노드 제품군이 V4를 전면 지원하면서 초노드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됐다. 특히 화웨이가 WAIC를 앞두고 차세대 Atlas 950 SuperPoD 공개를 예고하면서 초노드 경쟁은 이번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실제 WAIC에서 화웨이는 1,024장의 Ascend 950 연산카드를 탑재한 Atlas 950 SuperPoD 실물을 처음 공개했으며, 향후 최대 8,192개 NPU까지 확장 가능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는 초노드 기술이 개념이나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구축 가능한 AI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다. 화웨이뿐 아니라 Sugon, ZTE, MetaX 등도 초노드 기반 제품과 AI 클러스터를 잇달아 공개했고, 알리바바는 128개 AI 칩을 탑재한 M890 초노드와 이를 기반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발표했다. 초노드 기술이 특정 기업의 전략을 넘어 중국 AI 인프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규제와도 맞물려 있다. 최고 성능 GPU 확보에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국산 AI 칩을 대규모로 연결하고, 인터커넥트·메모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함께 최적화해 시스템 전체의 처리 성능을 높이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초노드 자체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들도 추진하는 기술 방향이지만, 중국은 이를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국산 AI 인프라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중국 AI 경쟁력의 평가 기준도 개별 AI 칩의 성능보다 시스템 전체의 처리량과 자원 활용률, 통신 효율, 소프트웨어 최적화 역량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6년을 '국산 초노드 양산 원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초노드 경쟁도 개념 검증을 넘어 실제 구축과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초노드와 초대형 클러스터 구축이 확대될수록 AI 칩뿐 아니라 서버, 광모듈, 스위치, 인터커넥트, 전력, 액체냉각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WAIC2026에서 공개된 화웨이 Atlas 950 SuperPod



자료: Huawe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 제2의 DeepSeek 모먼트? KIMI K3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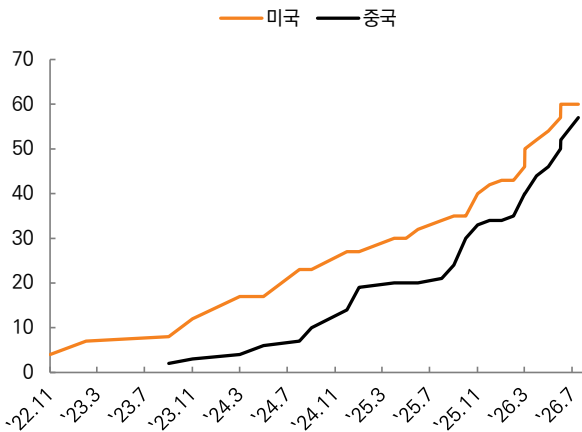
이번 WAIC에서는 MoonShot AI의 Kimi K3가 가장 큰 화제를 모으며 또 한 번의 'DeepSeek 모먼트'를 떠올리게 했다. Kimi K3는 코딩과 AI Agent 등 주요 영역에서 미국 선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훨씬 낮은 이용 가격과 오픈웨이트 전략을 제시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중국 LLM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됐으며, OpenAI와 Anthropic 등 미국 AI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됐다.

Kimi K3는 중국 LLM 기업들의 시장 침투 전략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AI 기업들은 최고 성능 경쟁보다 높은 성능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DeepSeek, Qwen, Kimi, GLM 등 오픈웨이트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자체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에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 환경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업무 난이도와 비용에 따라 여러 모델을 조합하는 AI 멀티 모델 라우팅 구조가 확산되면서 중국 모델의 활용 범위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가격 경쟁력과 개방성을 앞세운 중국 모델의 내수 및 글로벌 채택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OpenRouter 기준, 중국 모델의 주간 토큰 호출량은 2026년 2월 처음으로 미국 모델을 넘어선 이후 격차를 확대했으며, 이는 글로벌 개발자와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DeepSeek와 Qwen 등 비용 효율적인 중국 모델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내수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와 기업용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일평균 토큰 호출량이 2024년 초 1,000억 개에서 2026년 3월 140조 개로 급증하는 등 AI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오픈웨이트 생태계를 기반으로 내수와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에 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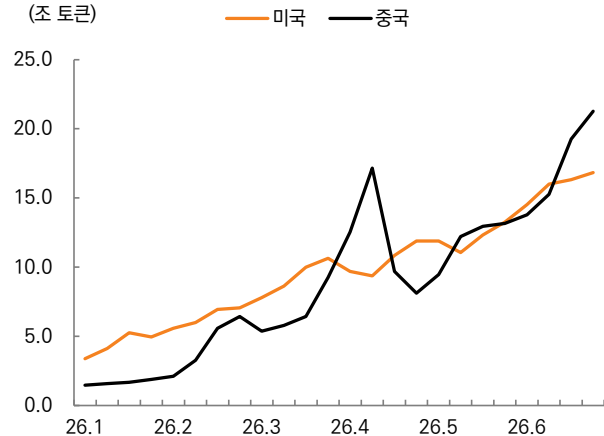
성능이 뛰어나고 이용 비용이 낮은 AI 모델은 AI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기업과 개발자의 AI 도입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토큰 사용량과 추론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GPU 서버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광모듈 등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2. 미국·중국 상위 LLM 성능 추이



자료: Artificial Analysi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2026년 미국·중국 토큰 사용량 추이



자료: OpenRout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KIMI K3와 글로벌 주요 LLM API 호출 가격 비교 (단위: USD/백만토큰)

	입력 가격	출력 가격	포지셔닝
GPT-5.6 Sol	5	30	폐쇄형
Claude Fable 5	10	50	폐쇄형
Claude Opus 4.8	5	25	폐쇄형
Kimi K3	3	15	오픈웨이트
Qwen 3.7 Max	2.5	7.5	오픈웨이트
GLM-5.2	1.4	4.4	오픈웨이트
K2.7 Code	0.9	4	오픈웨이트 (코딩특화)
MiniMax 3	0.6	2.4	오픈웨이트
DeepSeek V4 (Flash)	0.14	0.87	오픈웨이트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4) 산업과 일상 속에 다양한 형태로 진입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역시 올해 WAIC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다. 이전 행사들이 걷기, 달리기, 춤추기 등 기체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자동차 생산과 물류, 스마트공장뿐 아니라 호텔 세탁실, 약국, 리테일 매장, 가정생활 등 실제 작업 환경을 재현한 전시가 크게 늘었다. 부품 조립·운반이나 상품 분류 같은 단일 동작보다 작업 지시를 이해하고 여러 단계를 연속 수행하는 End-to-End 업무 수행 능력이 부각됐으며, 사람과의 대화·안내·협업 등 상호작용 역량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적용 범위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와 일상생활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 생산라인을 별도로 개조하지 않고도 약국과 호텔, 리테일 매장 등 사람이 근무하는 환경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등장했으며, 가정 내 정리·운반과 생활 보조를 수행하는 제품도 공개됐다. 제품 형태 역시 전신형뿐 아니라 상반신 로봇, 하반신 보행 플랫폼, 사람이 직접 탑승하는 승용형 로봇 등으로 다양해지며 활용 목적에 따른 세분화도 진행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산업은 산업용 자동화를 넘어 인간과 함께 일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기술 검증과 초기 상용화가 병행되는 단계로, 제한된 현장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향후 제조업과 물류가 초기 수요를 견인하는 가운데 비용 하락과 작업 안정성 개선, 데이터 축적이 이어질 경우 리테일·의료·요양·가정 등 생활 서비스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 시사점

WAIC 2026은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기술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국산 AI 칩과 초대형 클러스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오픈소스 모델, 빠른 산업 적용을 결합해 외부 제약을 보완하는 중국식 발전 경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중국 AI 산업의 자신감도 이전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미국과의 절대적인 기술 격차만을 강조하기보다, 중국이 강점을 가진 비용 효율성과 시스템 최적화, 풍부한 산업 데이터, 대규모 내수시장과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모델과 인프라, AI Agent, 휴머노이드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AI 생태계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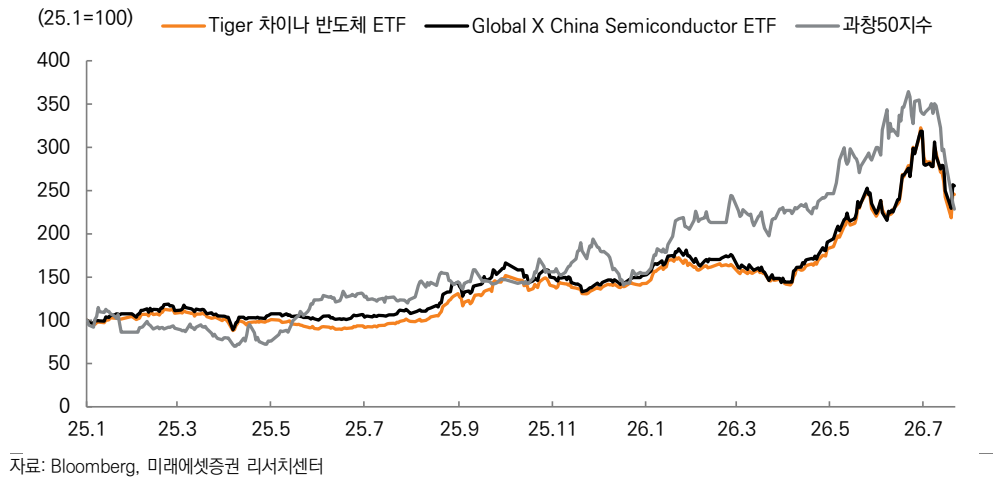
향후 투자 방향 역시 명확하다.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자본지출 확대, 산업 현장의 AI 도입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이미 모델 사용량 증가와 인프라 투자, 산업 적용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 빅테크, AI 스타트업, 제조기업이 산업 확장 과정에서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과 상업화, 인프라 구축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AI 산업의 확대 과정에서 중국 AI 생태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력과 수익성, 밸류에이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대표 반도체·LLM·휴머노이드 기업들의 IPO가 과창판에 집중되고 있다. 과창50지수는 중국 정부의 하드테크 육성 정책과 자본시장 지원, 핵심 AI 기업의 상장 확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표 지수다. AI 산업 성장과 함께 시장 유동성 개선과 기업의 이익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AI·반도체·첨단 제조 등 중국 기술주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과창50지수가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AI 산업이 초노드와 초대형 AI 클러스터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대규모 AI 반도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규제에도 중국 자체 AI 칩의 기술 고도화와 적용 범위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ETF(396520)와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03191.HK)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이다.

그림 4. 중국/홍콩 차이나 반도체 ETF 및 과창50지수 추이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